

사회

“베트남 신부, 6일만에 도망갔어요”

외국 여성과 혼인무효소송 잇따라  
매달 10여건... 취업위해 위장결혼

“아내가 입국한 지 6일 만에 도망갔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일에 매달리다 결혼적령기를 놓쳐버린 노총각 김선구(가명·42)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00번 넘게 맞선을 봤지만 40살에 들어선 나이에 다 부모를 모셔야 하는 위아들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김씨는 결국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 그는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치르고 지난해 5월 베트남에서 트럼(가명·여·21)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부편 마음을 뒤로하고 트럼씨의 입국 날짜 기다린 김씨는 지난해 6월1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트럼씨를 부모, 친척, 친구들에게 소개한 뒤 ‘신혼 단꿈’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김씨의 행복은 단 몇새 만에 끝났다. 트럼씨가 메모 한 장 없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중개업체에 문의했지만 베트남 가족 연락처까지 모두 변경됐고, 경찰에 실종신고도 해봤지만 트럼씨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 김씨는 결국 나이와 실망한 부모님 등을 감안해 서둘러 다시 결혼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이 나이에 한번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 어떤 여자가 결혼하려 하겠냐”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은 받은 광주지법 가사 2단독 이양희 판사는 “혼인무효소송은 앞으로 김씨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

이며 결정은 신중해야한다”며 “트럼씨의 소재를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이 없는 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라”며 결정을 미뤘다. 광주지법에는 도망친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 재판이 매달 10여 건씩 진행될 정도로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또 노총각만이 아니라 상처하거나 이혼한 40대 이상 남성들이 젊은 외국여성들과 재혼에 나서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이질적인 문화, 지나친 연령 차이, 브로커 개입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살의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가 이 여성이 3일 만에 도망갔다는 박모(50)씨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며 “브로커가 개입해 이 여성을 유혹업소에 빼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꽉 잠긴 터널 피난통로

호남대터널 등 광주·전남 12곳 고장 방지

감사원 지적

고속국도 터널에서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방재설비 상당수가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터널은 재해 시 차량 피난통로인 피난연락경문이 이탈해 있는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화재나 대형사고 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0일 호남지역 고속국도 터널 방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방재시설 일상 점검 및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1560m 길이의 광주 호남대터널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말 5개의 피난연락경문 가운데 1곳이 고장났으며 1253m의 장성2터널과 3698m의 장성3터널 등은 모두 5곳의 경문이 제대로 열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었다. 또 구례의 오수1터널 등은 라디오 재난방송 설비가 고장나 있는 등 1·2종터널 12곳에서 모두 33개의 방재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고속국도 316개 영업소의 ‘과적차량 적

발대장’을 분석한 결과 1차 검측에서 중량이 초과한 과적 차량이 2차 검측에서는 이 중 82.4%가 정상 판정을 받아 검측에 대한 축소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피난연락경문은 사람이 쉽게 열 수 있어야하며 문을 연 뒤에는 20~70초 이내에 자동 폐쇄돼야 하는데 고속국도의 경문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또 과적 차량 단속의 실효성이 낮아 고속국도의 포장 및 구조물 파손, 도로주행 안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일 오후 조선대 전자정보공과대학 IT홀에서 열린 2012 홍보대사 선발 공개 오디션에서 한 참가자가 정기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13명을 선발하는 홍보대사 모집에는 총 156명이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가보조금 5억 골격  
전 자활센터장 등 영장

수역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광주시 서구도 자활센터 전 센터장 김모(여·48)씨와 전 사업단장 김모(53)씨 등 2명에게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전 센터장 이(여·47)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자활사업 보조금 5억원을 횡령·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수룩한 강도짓... 알고보니 전직 공무원

한 때 공무원이었다가 통닭집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빚을 진 40대가 가솔한 뒤 돈이 궁해지자 강도로 전락했다. 순천경찰은 20일 피자를 주문한 뒤 피자 가게 여사장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김모(41)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한 피자 가게 여사장 A(47)씨에게 피자 15판을 주문한 뒤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함께 배달해 달라”고 숙여 A씨의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강도로 들변했다. A씨가 갖고 있는 현금

임신부까지 동원한 보험사기단

지인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 택시기사 등 125명 적발

후배나 지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등 12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20일 가해·피해차량으로 나눠 서로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1000만원을 받아낸 대리운전기사 및 택시기사 등 보험사기 피의

자 125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 김모(3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의심 신고를 받고 4개월간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김씨는 목포지역 대리운전기사로 동료 및 지인들을 끌어들여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2009년 9월 20일 밤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공범 이모(32)씨 등 2명이 탑승

한 차량이 공범 강모씨(25) 등 4명이 탄 차량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850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 등은 영업용 택시기사인 임모(34)씨 등과 짜고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모두 41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보험범죄에 필요한 교통사고에 임신 7개월의 임신부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장 사퇴하라” 관 들고 시위  
조선대 교수·직원 4명 입건

광주 동부경찰은 20일 총장선거 이후 대학 업무를 방해하고 이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대 교수 등의 회보 의장과 윤모 교수, 직

원노조 최고 위원장 등 조선대 교수·직원 4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호중 전

총장이 재임한 지난 해 9월부터 당선 뒤 사퇴한 11월 말사이 허위사실을 적은 현수막을 학내에 내걸어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전 호중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관(館)을 총장 집무실에 놓고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여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구 지랄한 곳서 고교생 숨져

20일 오후 4시경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한 저수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모(18)군이 숨져있는 것을 수색중이던 경찰과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이군은 전남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이군의 노트북에는 지난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교회 18곳서 오르간 등 출처 팔아

○예배가 없는 평일 시간대를 이용, 교회에 들어가 8개월여 동안 돈이 팔만한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쳐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달미.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 그만둔 김모(40)씨는 지난해 여름 광주로 와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북구 모 교회의 식당 창문을 뜯고 들어가 예배당에 있던 전자오르간(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8곳의 교회에서 2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식당 등에 팔았다는 것. ○경찰은 “강사의 강도행각을 확인하고도 이를 감싸안은 교회가 많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강사가 절도 전력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orldwide advertisement for Segistar.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Sydney Opera House and a city skyline. The text includes '세계보청기' (World Hearing Aid),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The stage of the century is the world!), and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Worldwide authority certification! FDA approved!). It lists various Segistar product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 website www.segistar.co.kr and a phone number 1588-8499/080-222-0100.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ISO, CE, GMP) and a list of Segistar bran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other parts of South Korea. It provide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each branch.